線으로 禪을 그려내다
〈선〉 〈선〉

법관 스님, 가나인사아트센터 개인전

4월 8~21일, 2개 층서 개최
선 통한 색면추상 70점 선봬
"작품도 수행도 최선 다할 뿐
대중이 작품 통해 위안 얻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법관 스님의 연작 '선(2026, 왼쪽)'과 '선_즉심(2026)'.

시작은 '선(線)'이다. 불규칙적이면서도 규칙적인 선들의 반복된 조합은 이내 면을 이루며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색면추상회화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법관 스님의 개인전이 열린다.

법관 스님은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4층 부산갤러리와 5층 경남갤러리에서 30번째 개인전 '선(禪) 2026'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님이 학고재 전속작가로 선정된 이후 열리는 첫 개인전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두 개 층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 층마다 작품의 콘셉트가 다르다. 부산갤러리에서는 기존 스님의 미학적 개념들을 정리한 작품들인 '선(禪)' 연작을 선보이며 경남갤러리의 작품들은 최근작들로 '즉심(卽心)이라는 부제를 가진 연작들로 총 70여 점이 전시된다. '선' 연작들이 촘촘한 선들로 면을 이뤄낸다면 근작인 '즉심' 연작은 단순한 행위의 흔적들이 빚어낸 이미지로 새로운 표현을 보여준다.

화면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선은 절제된 색채와 만나 질서와 울림을 만들고,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한국 전통 삼베를 연상시키는 직조감과 물성을 드러낸다. 이 같은 화면은 화려한 서사보다 응축된 호흡과 공력을 앞세우며 한 획 한 획 쌓아 올린 수행의 시간을 시각화하고 있다.

강릉에서 수행 중인 법관 스님은 특별히 그림을 배우지 않았다. 그랬기에 작품은 정형화되지 않으며 얽매임이 없다. 이는 작품활동과 함께 수행을 놓지 않은 선승(禪僧)이기에 가능했다.

법관 스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선이라는 범주를 떠나 본 적이 없다"면서 "모든 관계에서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임을 지향하며 본 모습과 무의식 속의 모습을 시각화하려 했다"고 스스로의 작품세계를 설명했다.

이처럼 법관 스님은 "작품은 자기 내면까지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지금의 마음이 즉심으로 오롯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이전의 마음을 절제하고 정제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마음은 그 이전의 마음과 만나서 현재로 전달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늘 지금 이전의 조건들을 놓쳐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 삼아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작품도 수행도 모두 생활의 일부"라며 "주어진 시간에 그 순간에 몰입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시 서문을 쓴 윤양호 전 원광대 교수 역시 "법관 스님의 작품에 표현되는 독창성은 절제와 즉흥성, 반복성, 비정형성, 단순성"이라며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자신의 정신성이 드러나는 정도에서 멈춘다는 것은 절제의 과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법관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인들에게 위안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스님은 "제 작품을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천, 소리 없는 노래를 부르다

박은신 작가 7번째 개인전

4월 8~13일 갤러리 이즈서


박은신 작가의 연작 '소리 없는 노래를 들려줄게(2026)'.

비천과 불보살 등 불교적 이미지를 차용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박은신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박 작가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견매화유감(見梅花有感)'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최근 천착하고 있는 '주악비천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리 없는 노래를 들려줄게' 연작부터 자신의 화두인 '시간'에 기반해 '덧없음과 영원' 사이에서 궁극의 답을 찾아가는 시선과 여정을 화면에 담은 작품들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안성 청룡사, 강진 무위사, 완주 송광사 등의 주악비천도에서 영감을 받은 비천 연작 '소리 없는 노래를 들려줄게'는 "각자에게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란 모두 다를 것이기에, 어떤 음으로 한정 짓지 않은 음악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제목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의 마음에 소리없는 노래로 다가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굳건해지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다"는 작가의 바람을 담았다.

자신이 불교 이미지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작가는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려불화대전'에서 큰 감동을 받은 후로부터"라고 회고했다. 그는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순수회화로 재창조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됐고 이후 불교적 이미지를 소재로 현대적 해석을 하는 작품을 그리게 됐다"면서 "고려불화가 가진 '어둡지만 빛나고, 화려하지만 고요한' 감성을 제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판화' 장르 개척 신예

해프닝서울, 조민경 개인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민경 작가의 작품.

'불교 판화'라는 독자적 장르를 개척해나가고 있는 조민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서울 해프닝서울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민경 작가의 개인전 'No Umbrella Required(그러니, 우산은 필요 없습니다)'를 개최한다.

조 작가는 동국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불교미술과 판화 기법에 매료돼 '불교 판화'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신예다. 오랜 시간 예배와 신앙의 엄숙한 대상물로만 기능하던 불화(佛畵)를 동시대 시각예술의 주체적 소재로 치환하며 불교미술의 현대화라는 미학을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가는 전통적인 복제 도구인 목판과 동판을 재해석한다. 태생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찍어내는 행위'에서 과감히 벗어나 칼끝에 깎여나간 목판의 물리적 상흔, 그리고 긴 시간 산(acid)을 머금고 서서히 부식되어 간 동판의 화학적 흔적에 주목한다. 수행과도 같은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판(Matrix)' 그 자체가 작품이 된다. 이는 단순한 도구적 쓰임새를 넘어 매체의 순수한 물성과 시간성에 닿고자 하는 치열한 예술적 실천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단단했던 금속마저 부식되고 마모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며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無常)의 철학을 고요히 은유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㊱ 안수정등(岸樹井藤)

15초의 꿀방울, 슬픈 중독의 굴레

岸 樹 井 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당나라 시대 승려 의정(義淨, 635~713)이 번역한 〈불설비유경〉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이라는 서늘한 우화로 그 물음에 답한다. 한 사내가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에 쫓기다 절벽의 칡덩굴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한다. 발아래에서는 독룡이 입을 벌리고, 우물 벽에는 네 마리 독사가 도사린다. 설상가상으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생명 줄인 덩굴을 갉아먹는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머리 위 벌집에서 떨어진 꿀 다섯 방울이 입술에 닿자 사내는 위기를 잊고 황홀경에 빠진다.

이 비유는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 제11권에 기원을 두며, 동서양 사상가들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 우화를 인용하며,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하던 꿀방울(예술과 가족)이 더 이상 달지 않다고 고백한다. 파스칼은 인간이 존재의 비참함을 외면하기 위해 사소한 오락에 몰두하는 현상을 '전념'이라 부르며 경계했다. 고대 그리스의 '다모클레스의 칼' 또한, 머리 위에 말총 한 가닥으로 매달린 칼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통해 권력과 삶의 불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와 통한다.

오늘날 우리의 꿀방울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다. 우화 속 꿀이 다섯 방울이었다면, 현대인의 손안에는 수만 방울의 디지털 자극이 쉼 없이 쏟아진다. SNS의 '좋아요' 알림, 15초마다 바뀌는 짧은 영상(Short-form), 자극적인 가십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찰나의 감미로움에 취해 다가오는 세월(코끼리)과 밤낮으로 삶을 갉아먹는 시간(쥐)의 흐름을 망각한다.

화면이 주는 가상의 포만감은 우리를 '기분 전환'이라는 늪에 빠뜨린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잠깐의 무료함조차 참지 못해 화면 속으로 도피하는 모습은, 우물 속에서 꿀방울을 핥으며 위기를 잊는 어리석은 인간의 현대적 변주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돌봐야 할 내면의 평화와 곁에 있는 실재의 인연은 점점 메말라 간다.

'안수정등'의 가르침은 생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직시하라는 준엄한 죽비 소리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꿀방울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에 취해, 정작 덩굴을 붙잡은 손의 힘을 놓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어 우물 밖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어떤 덩굴에 매달려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묻는 일, 그것이 이 슬픈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